

# “진정한 자유는 연기적 관계에서 찾아야”



직지, 길을 가리키다  
이시우 지음  
민족사 펴냄  
2만 9500원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책의 역사'전에서 '직지심경'이 발견됐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것을 전시회에 출품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의 존재가 처음 공식으로 확인됐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70년 이상 앞선 것이다.

고려 공민왕 때인 1372년 백운화상이 저술한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을 줄여 칭하는 '직지심경'은 중국 송나라의 전등록에서 역대 불조들의 법화를 뽑아 엮은 것이다.

1972년 공개된 직지심경 하권은 백운화상이 입적한 지 3년이 지난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상·하 두 권이 한 질인데 상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직지심경은 1900년 전후에 서울 주재 초대 프랑스 공사로 근무한 플랑시가 수집한 것으로 그가 죽자 경매에서 베베르라는 수집가에게 팔렸다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됐다. 활자의 주조술과 조판술이 아주 미숙했던 고려시대에 판서(官署)가 아닌 지방의 한 사찰이 전통 밀랍주조법으로 주조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활자 크기와 글자모양이 고르지 않고, 부족한 글자를 나무활자로 보충해 찍었기 때문에 인쇄상태가 조잡한 편이다. 하지만, 문헌에만 전해지던 여러 종의 고려 주자본 중 유일하게 전래되는 금속활자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직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간 <직지>는 번역서 몇 권과 선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 강설 교재만이 나와 있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엔 큰 벽처럼 느껴졌다. 또한 선불교의 교과서라고 일컬어질 만큼, 선불교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문답하다'라는 말의 뒤임 스승도 느껴진 것처럼 '선'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하지만 이시우 박사(오른쪽 사진)의 <직지, 길을 가리키다>는 <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 것이 흥미롭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현대 사회에 적용할지, 연기론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어렵지 않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처님과 역대 조사를 가르침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서 길어올려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직지>원문 번역문과 각 선어에 대한 이시우 박사의 단상(斷想)들은 책 속에 갇힌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각 선어 번역과 저자 단상 적어 <직지심경> 연기론적 관점에서 해석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 직지를 통해 볼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선불교에서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지만, 다른 존재와의 연기적 관계가 무시되는 자유는 오히려 권위의식을 지닌 아상의 표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연기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주의 만유와 더불어 연기법에 따라 인간 본연의 삶의 가치와 존재가치를 구현토록 하는 것이 선불교의 목적이 되어 함을 강조한다.

이시우 박사는 특히 과거철불의 계승 역시 연기법에 따른 중도 사상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사람이 부처라는 인불사상으로 인간의 마음만을 중시하고 외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른 주관과 외물에 대한 객관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주객불이의 만불사상(萬佛思想)을 보이고 있다. 선사들이 자연의 외물에 불법의 진리가 들어 있음을 깨달음의 노래인 계승서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선사들은 근본적으로 만유의 연기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불교도 이제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논리적인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분석 및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주 만물이 부처이므로 이들과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만불사상(萬佛思想)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종교가 인간 세계에 국한된 채 정신적 내면의 세계만을 다룬다면 자연과의 연기관계가 소홀해지고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파괴할 수 있다.

저자는 만일 이런 것을 인식 못하면 삶의 터전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궁극에는 자연의 선택으로 인류가 자성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인류를 위협하는 갖가지 환경 문제 역시 연기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때 근본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1217@hyunbul.com

# 코이케 스님의 '평상심 레슨'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유운한 역  
21세기북스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2011년 아시아 문화센터에서 다섯 번에 걸쳐 강의를 한 '불교식 평상심 수업'을 정리한 것이다.

원제는 <평상심 레슨>으로, 주된 요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주된 고통을 5가지의 큰 주제로 정리하고, 이를 일상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핵심 요소인 '명상'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자 한다. 저자가 서두에서 밝힌 바는 이 강연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불교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론이다. 고통은 세무 제목을 통해 저자의 구체적(死)의 네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찬 일체개고(一切皆苦)의 길"이라 했다.

# 집중명상과 선정...몰입된 명상 상태

사마타명상

헤네콜라 구나타나 스님 지음 | 이재석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펴냄 | 1만 3천원



이 책에서 스님은, 다시 한 번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사마타 수행에 대

한 탁월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선정 수행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위빠사나와 사마타라는 불교 명상의 두 축을 하나로 아우르는 완벽한 청사진을 펼쳐 보인다. 빨리어로 '자나Jhana'라고 부르는 집중명상 또는 선정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깊은 고요와 집중을 이룬 명상 상태다. 이 선정 수행으로 우리는 불교 명상의 궁극 목표인 '완전한 자유(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 책에서 스님은 해탈에 이르는 선정 수행의 실제 단계들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우리를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마음 상태로 이끈다. 아울러 수행자들이

각 단계에서 잘못되거나 편협한 길로 빠지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가르침을 베푼다.

이 책은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1~2장은 선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집중과 선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이 올바른 집중이고 잘못된 집중인지, 집중과 알아차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정에는 어떤 이로움과 함정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둘째, 3~7장은 선정 수행의 준비 단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마타 명상에 들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사마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수련인 자애명상과 호흡명상,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인 장애와 족쇄, 사마타 수행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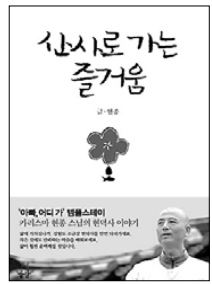
셋째, 8~14장은 선정 수행의 실제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선정이 아닌 상태에서 선정 상태로 옮겨가는 전환점인 근접삼매에서부터, 실제 선정 상태인 세간 선정(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과 출세간 선정에 이르러 가기까지, 각 선정 단계들의 상태와 특성,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 파스텔화 같은 스님의 산사스케치

산사로 가는 즐거움

글 현종 스님 | 공감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고요한 산사서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훈탁한 속세의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작은 행복을 일깨워주는 현종 스님의 파스텔화 같은 산사스케치이다. 스님은 아낌없이 주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비움'의 미학을 이야기한다. 또 수없이 죽어 간 생명들의 영혼을 동식물 천도재로 달래주며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의 소소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자기계발 성격의 '노하라'는 식상한 법문 형식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 생명존중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찾아나서는 작은 울림의 서정적 생활법문으로 행복한 마음을 일깨워준다.

'비움'이 화두인 시대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감정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지만, 우리는 늘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고 스님은 말한다. 자연 속을 거닐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것을 말한다. '카리스마 현종 스님'의 캐릭터를 '아빠와 같이 가는 현대사 템플스테이'로 확산해 '소통하는 아빠,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자녀교육 사회운동을 목표로 한다.

'힐링'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 키워드이다. '아빠, 어디가'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생활에 지쳐 가정에 소홀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우리 시대 아빠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을 꾀한다. 이들의 현대사 템플스테이가 방영되면서, 예능감 넘치는 현종 스님은 일약 '스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 템플스테이에 관심 갖게 되었다. 거친 말투와 짜증, 과격한 성격의 이기적인 아이들에 지쳐 부모모양이 산사를 찾아와 '마음 기행'을 버라는 현종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 전달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 “세상 보는 관점 바뀌면 성공 가능”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성공습관

성담 지음 | 셀프컬처리서치 펴냄 | 1만 3800원



“열망은 마치 사막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와도 같습니다. 석유는 아무 리 많더라도 꺼내어 불을 붙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대산에 효심사를 창건한 저자 성담 스님이 수행 생활의 깨달음을 책으로 정리한 설명집을 펴냈다.

스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의 생각은 '전체'로 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생각과 우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니 사람의 생각과 나타난 결과는 일치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선천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교 구조를 갖고 태어난 셈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는 판단과 행동이 전혀 엉뚱한 것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다. 첫째, 자연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면 된다. 법칙이 몸이 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둘째, 당신이 자연 법칙을 깨달으면 된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나'와 '나아난 것'을 나누지만 실제로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을 때 자신이 기여하는 것은 불과 5%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우주이고 자연이다. 이렇게 깨달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하는 것이 곧 이루는 것'이 된다. 이때 하는 것은 이전에 불인과 의문 혹은 낙관적 기대 속에서 하는과는 전혀 다르다. 결국, '하는 것'이 '되는 것', 그 자체이므로 '하는 것'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 희소식

##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장토회 처평(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장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평)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 설법·화술

##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 개인지도, 출장강의 - 직접 상담 후 결정
- ◆ 장소 : 본 연구원 강의실

특기사항: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교육 : 우불 김철회 박사 < 직접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